

## F. Kafka: "Amerika"<sup>1)</sup> 연구

권 오 상

(인문대 독어독문학과)

### 〈 차례 〉

1. 서 론
2. "Amerika"에 나타난 소외
  - 2.1 지속적인 업무와 비인간화
  - 2.2 분업으로 인한 개성 상실
  - 2.3 '중간기관'(Vermittlungsorgan)
3. 결 론

### 1. 서 론

Kafka는 장편 "Amerika"의 첫번째 원고를 1911년 연말에 쓰기 시작하여 1912년 8월에 중단했다. 이 원고는 지금은 소실되고 없다. 현존하는 새로운 원고는 1912년 9월 25일 이후 쓴 것이며, 이것 역시 완성을 보지 못했다. 이 원고는 집필 시기가 "Das Urteil", "Die Verwandlung"과 비슷하다. 이 원고 중에서 일부인 제1장이 Kafka의 의사에 따라 "Der Heizer"라는 이름으로 1913년 5월에 Kurt Wolf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제1장에 이어지는 집필 작업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913년 1월 24일부터는 장기간 중단되었다. 이 첫번째 집필 기간 중에 제1장부터 7장("Der Heizer"부터 "Ein Asyl")까지가 완성되었다. 오랜 중단 끝에 1914년 10월 중순에 약간의 진전이 있어 미완성인 "Ausreise Bruneldas"와 "Das Naturtheater von Oklahoma"가 쓰여졌고, 그 이후 Kafka는 집필 작업에 손을 대

1) 이 작품은 Jost Schillemeit에 의해 Fischer 출판사에서 1983년 "Der Verschollene"라는 제목의 비판본으로 출판되었으나 본고에서는 Max Brod 阪에 의한다.

## 2 인문학연구 제3집

지 않았다.

이 미완성 작품은 “Amerika”라는 이름으로 Max Brod에 의해 출판이 준비되었고 Kurt Wolf 출판사에 의해 1927년 München에서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고, Kafka가 생각하고 있었던 제목은 “Der Verschollene”(F 86)였다. 1장에서 6장까지의 표제와 배열은 Kafka 자신에 의해 이루어져 있었다. 나머지 부분은 제목이 없고 배열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중 대부분은 Max Brod가收拾을 해서 표제를 붙이고 배열을 했다.

Kafka는 Arthur Holitscher가 쓴 여행기 “Amerika heute und morgen”(1912)에서 이 작품의 소재를 얻었고 또 집필의 자극을 받았다. 이 여행기의 몇 부분들이 미리 “Neue Rundschau”(1911년 말 - 1912년 초)에 실렸었고 Kafka는 이것을 읽었음에 틀림없다. 이것 외에 Kafka에게 자극을 준 것은 “미국과 그 관료제도”(Amerika und seine Beamtschaft)에 관한 Prag 사람 Frantisek Soukup의 슬라이드 강연이었다. 그는 1912년 7월 1일에 이 강연에 참석했던 것이다.(T 175) “Amerika”에 나오는 도시들의 묘사는 이 강연 외에 우선 Holitscher의 여행기에 실려 있는 사진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Amerika”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모티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Charls Dickens의 소설 “David Copperfield”였다. 처음에 Kafka는 “David Copperfield”가 끼친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1917년에 처음으로 Kafka는 그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의 의도는 Dickens 류의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다만 내가 이 시대에서 알아 낸 자극성의 빛과 내 자신의 내면에서 끌어 낸 희미한 빛을 이 소설에 첨가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Meine Absicht war, (...), einen Dickens-Roman zu schreiben, nur bereichert um die schärferen Lichter, die ich der Zeit entnommen, und die mattern, die ich aus mir selbst aufgesteckt hätte.(T 334)

"Amerika"에는 Kafka 장편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回轉軸의 現象"(das Phänomen der Achse)<sup>2)</sup>이 바로 그것이다. 이 回轉軸은 장편 소설의 중심 모티브나 주제등을 포함, 豫示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回轉軸은 소설의 핵심을 이루면서 보통 "비유설화"(Parabel)나 '틀소설'(Rahmenerzählung) 등으로 나타난다.<sup>3)</sup> "Amerika"에서도 '틀소설'인 Therese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자본주의 세계 질서"<sup>4)</sup>가 한번 주인공과는 다른 입장에서 관찰이 된다.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Therese의 이야기(A 126 ff.)는 "開眼을 시켜 주는 器具"(Augenöffner)<sup>5)</sup>로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深思熟考케 하고 그에게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여, 현실의 울가미에 걸려들어 거기에서 완전히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이 교훈적인 回轉軸은 "Der Prozeß"에서는 "Vor dem Gesetz"로, "Das Schloß"에서는 "Olga의 이야기"로 나타난다. "Olga의 이야기"에서는 Barnabas 가정의 몰락이 주인공 K.에게 경고하는 의미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이야기는 장편소설이 가지고 있는 테마의 핵심 부분으로서 주인공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Max Brod는 이 소설의 결말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주인공 Karl Roßmann은 결국 "그가 지닌 순수성으로 인해 가까스로 파국을 면하게 된다."(A 261) Spilka는, Kafka가 지닌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Kafka와 Dickens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소설가들은 상업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어버이 관계를 사용한

2) Peter U. Beicken: Franz Kafka.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 Frankfurt a/M 1974, S. 257.

3) Jürgen Kobs: Kafka. Untersuchungen zu Bewußtsein und Sprache seiner Gestalten, Bad Hombklurg 1970, S. 499f.

4) Pete U. Beicken: a. a. O., S. p.257.

5) Ebd., S. p.257.

#### 4 인문학연구 제3집

다. 이 상업세계에서는 아버지나 고용주가 가정에서 하듯이 열성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아들이나 被雇傭人의 인격을 억압한다.

Each novelist uses parental relations to depict commercial realms, where the "fathers" or employers, suppress the manhood of their "sons", or employees, with as much zest and injustice as in the home.<sup>6)</sup>

Kafka의 소설은 上記 인용문의 내용으로 보아 현대 사회와 노동 세계에 존재하는 억압 세력들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가 된다. Emrich는 이 작품의 소재를 현대 문명의 위기 현상으로서의 소외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Politzer는, 이 작품 "Amerika"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세계의 자유와 정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인생관 교육을 시키는 "교양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다<sup>7)</sup>.

필자는 본 작품에 나타나 있는 소외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작품 중 주인공의 아저씨가 경영하는 회사와 "Hotel Occidental"의 현장에서 인간의 소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2. "Amerika"에 나타난 소외

우리는 이 작품 중 주인공의 아저씨가 경영하는 회사와 "Hotel Occidental"의 현장에서 인간의 소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소외현상을 몇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2.1 지속적인 업무와 비인간화

"Amerika"에서의 모든 노동은 조금도 쉴틈없이 빠른 템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은 New York 港의 선박의 움직임과 같아서 "끝없는 움직임이고, 불안의 요소가 속수무책의 인

6) Spilka: Dickens and Kafka. A Mutual Interpretation. Blooming- ton 1963. S.256. zitiert nach: Peter U. Beicken: a. a. O., S. 253.

7) Peter U. Beicken: a. a. O., S. 254.

간들과 그들의 작업에 미친 영향에서 결과하는 일종의 지속적인 움직임”(A 20)이다. 인간은 자기의 매너리즘화한 노동의 세계를 제압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 세계에 내맡겨져 있는 것이다.

Kafka 작품의 현대 산업사회에 대한 예언적 성격은 形而上學的인 思索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정확한 현실 묘사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묘사의 배경에는 노동자 보험 회사의 社員으로서의 그의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매일 노동 현장 근로자들과 접하는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곳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그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공장의 작업 장면의 묘사인데 인간들은 소외된 노동에 의해 그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의 하찮은 부속물로 전락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인간의 모든 활동 - 人事, 對話 등 -은 제거되고 인간의 동작이 기계의 작동 속도에 따라 非人間的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다.

여공들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단추를 풀어 놓고 있었다. 머리는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헝크러지고, 기계의 運動裝置에서 나오는 지독한 소음과 자동이기는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고장이 나는 기계 때문에 긴장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공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부딪혔을 때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하찮은 일에 불려갔다가는 금방 기계 곁으로 되돌아온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머리 동작으로 지시받으며 상의는 벗은 채 작업을 하고, 아주 조그마한 힘 앞에도 속수무책으로 내맡겨져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힘의 정체를 파악해 보고 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 볼 생각조차도 해 본 적이 없다.

Die Mädchen in ihren an und für sich unerträglich schmutzigen und gelösten Kleidern, mit den wie beim Erwachen zerworfenen Frisuren, mit dem vom unaufhörlichen Lärm der Transmissionen und von der einzelnen, zwar automatischen, aber unberechenbar stockenden Maschine festgehaltenen Gesichtsausdruck, sind nicht Menschen, man grüße sie nicht, man entschuldigt sich nicht, wenn man sie stößt, ruft man sie zu einer kleinen Arbeit, so führen sie sie aus, kehren aber gleich

## 6 인문학연구 제3집

zur Maschine zurück, mit einer Kopfbewegung zeigt man ihnen, wo sie eingreifen sollen, sie stehn in Unterröcken da, der kleinsten Macht sind sie überliefert und haben nicht einmal genug ruhigen Verstand, um diese Macht mit ihren Blicken und Verbeugungen anzuerkennen und sich geneigt zu machen.(T 155)

이러한 풍자적인 묘사에 나타나 있는 상세한 상황들이 주인공 Karl Roßmann의 외삼촌 회사 電信室에 다시 등장한다.

(..)그 곳 눈부시게 비치는 전기불 속에는 종업원 한사람이 도어 소리에 아랑곳없이 강철띠로 머리를 감은 채 귀에다 수화기를 대고 있었다. 바른팔을 아주 무거운듯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연필을 쥐고 있는 손가락만이 기계처럼 경련하듯 재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수화기를 향하여 하는 소리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것이었고, 아마도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하고, 더 똑똑히 물어 볼 일이 있는 모양이었는데, 귀에 몇마디 소리가 들려오자 미처 질문할 생각에도 이르지 못한 채 아래를 보고 기록해 두지 않을 수 없었다. (...), 종업원들은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받는 것과 똑같은 보고를 동시에 다른 두종업원에게도 수신시켜 될 수 있으면 오류를 없애고자 이것들을 비교하기 때문이었다.(...)그 홀의 한 가운데에는 바쁘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다.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다. 인사는 자연히 폐지되었다.(...)

(..), und man sah dort im sprühenden elektrischen Licht einen Angestellten, gleichgültig gegen jedes Geräusch der Türe, den Kopf eingespannt in ein Stahlband, das ihm die Hörmuschel an die Ohren drückte. Der rechte Arm lag auf einem Tischchen, als wäre er besonders schwer, und nur die Finger, welche den Bleistift hielten, zuckten unmenschlich gleichmäßig und rasch. In den Worten, die er in den Sprechtrichter sagte, war er sehr sparsam, und oft sah man sogar, daß er vielleicht gegen den Sprecher etwas einzuwenden hatte, ihn etwas genauer fragen wollte, aber gewisse Worte, die er hörte, zwangen ihn, ehe er seine Absicht ausführen konnte, die Augen zu senken und zu schreiben. Er mußte auch nicht reden, (...), denn die

gleichen Meldungen, wie sie dieser Mann aufnahm, wurden noch von zwei anderen Angestellten gleichzeitig aufgenommen und dann verglichen, so daß Irrtümer möglichst ausgeschlossen waren. (...) Mitten durch den Saal war ein beständiger Verkehr von hin- und hergejagten Leuten. Keiner grüßte, das Grüßen war abgeschafft. (...) (A 44 f.)

쉴틈없이 지속되는 강요된 작업으로 인해 모든 인간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인간은 기계화되고, 그가 소속된 조직과 기구에서 단지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노동 현장은 개개인에게 그가 가야할 길을 지정하고 그는 그 길의 전방만을 쳐다보며 곧장 가능한 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代置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대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대치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와 같이 큰 기업은 작동이 불가능하다." (A 165)

Occidental 호텔의 프론트 직원들의 직무도 아저씨의 電信室에서의 작업 못지 않게 비인간적이다. 두명의 직원이 언제나 열명 이상의 호텔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다. 이들 고객들은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몇몇 외국어가 뒤섞여 언어가 뒤죽박죽이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들 직원이 해내는 쉴틈 없는 노동 활동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보통의 말씨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종알거리는 것처럼 무어라고 지껄었다. 특히 그중에도 얼굴 전체가 검은 수염으로 둘러싸이고 우울한 표정을 짓는 한쪽 사람은, 조금도 막히지 않고 유창하게 대답을 해치웠다. 그는 언제나 참고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상 위 유리판도 들여다보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의 얼굴도 쳐다보는 일도 없이, 오로지 정력을 아끼고 집중시키기 위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Bloßes Reden hätte für ihre Aufgabe nicht genügt, sie plapperten, besonders der eine, ein düsterer Mann mit einem das ganze Gesicht umgebenden dunklen Bart, gab

## 8 인문학연구 제3집

die Auskunft ohne die geringste Unterbrechung. Er sah weder auf die Tischplatte, wo er fortwährend Handreichungen auszuführen hatte, noch auf das Gesicht dieses oder jenes Fragers, sondern ausschließlich starr vor sich, offenbar um seine Kräfte zu sparen und sammeln.(A 162)

그들은 일상적인 속도의 말로는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계속 지껄여대야 하는 앵무새이거나 로봇트와 다름없다. 또 보조자료가 놓여 있는 책상이나 問議者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 앞만을 바라보며 정보를 제공해야만 자기들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답변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답변으로 이어지다가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의를 했던 고객은 불안해 하며, 그 답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긴장한 얼굴을 하고서 경청을 하지만, 결국 잠시 후에 바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답변은 이미 끝나버린 것을 알게 된다.(A 163) 도중에 질문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의 속도로 봐서 불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조와 교대를 하고 난 후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열된 그들의 머리 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두 대야의 찬물을 끼얹어야 한다.”(A 164) 이와같이 그칠 줄 모르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고 기계화 내지 로봇트화 되는 것이다.

아저씨 회사의 電信室이나 호텔 프론트에서 볼 수 있는 기계적인 분주한 모습은 비슷하게 도로상에서도 일어난다.

Karl은 곳곳이 상반신을 일으키고 앉아서 단지 이삼미터 아래를 통과하고 있는 한길을 바라보았다. 낮동안 내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자동차가 경쾌하게 서로 스치며 지나갔다. 마치 일정하고 정확한 자동차 대수가 멀리 한쪽 끝에서 출발하고 또 반대편 한쪽 끝에서도 똑같은 대수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침 일찍부터 낮까지 쪽 Karl은 아직도 자동차가 정거하고 승객이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Karl saß aufrecht und sah auf die ein paar Meter tiefer führende Straße, auf der immer wieder Automobile, wie schon während des ganzen Tages, leicht aneinander vorübereilten, als würde in genauer Anzahl immer wieder von der Ferne abgeschickt und in der gleichen Anzahl in der anderen Ferne erwartet. Während des ganzen Tages seit dem frühesten Morgen hatte Karl kein Automobil halten, keinen Passagier aussteigen gesehen. (A 97 f.)

이와같은 자동차 走行은, 말하자면 匿名性으로, 千篇一律的이며 분명한 시작과 끝도 없이 먼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외삼촌 회사의 電信室이나 호텔 프론트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非人間化 내지 機械化가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된 데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군중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하나의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더 통일"(A 49)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간은 개개인이 자기의 개성을 상실하고 집단 속에서 '世人'으로 변하고 만다. 이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는 Karl이 구경하고 있는 선거 유세 장면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上述한 선거 유세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서 Kafka는 可視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정치 상황을 규제하는 操作的 자동체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신사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거리에 걸쳐서 이 신사의 支持者들이 흥청거렸다. 그들은 모두 손뼉치며 아마도 그 신사의 이름인 듯싶은, 아주 짧아서 잘 알아듣기 어려운 이름을 곡조를 붙여서 길게 빼는 노래 속에서 알려주고 있었다.

Im weiteren Umkreis war um den Herrn die ganze Breite der Gasse, wenn auch, soweit man im Dunkel schätzen konnte, auf eine unbedeutende Länge hin, von Anhängern des Herrn angefüllt, die sämtlich in die Hände klatschten und wahrscheinlich den Namen des Herrn, einen ganz kurzen, aber unverständlichen Namen, in einem

getragenen Gesänge verkündeten .(A 204)

“공동의 함성”(A 203) 속에서 대중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이름”을 외쳐대며 “기계처럼 박수를 쳐대는 것”(A 205)이다. 선거 참모진에 의해 짜여진 계획에 따라 대중은 기계처럼 일사불란한 행동의 통일을 보여주고 있다.

## 2.2 분업으로 인한 개성 상실

Kafka는, 類的存在로서의 노동활동이 가능한 세계는 수공업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공업자가 만들어낸 제품은, 생산자가 소외되지 않고 제도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연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열정과 친밀감의 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완전무결한 것이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편파적이고 전문화된 작업과정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노동이 중심과제가 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결정적인 대립과 모순의 근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Kafka는, “Amerika”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를 연습하는 소외감을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Karl은 실망했다. 엘리베이터 보이는 그 기계장치에 대해서 단추를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관계에 그친다. 連動機의 고장을 수선하게 될 때, 그것은 다시 모든 호텔의 機械係에 소속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Giacomo도 반년 동안이나 엘리베이터 내부의 기계장치를 한번도 제눈으로 본 일이 없었다. 그가 분명히 말한 바와 같이 그 장치를 자기 스스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Enttäuscht war Karl vor allem dadurch, daß ein Liftjunge mit Maschinerie des Aufzuges nur insofern etwas zu tun hatte, als er ihn durch einen einfachen Druck auf den Knopf in Bewegung setzte, während für Reparaturen am Triebwerk derartig ausschließlich die Maschinisten des Hotels verwendet wurden, daß zum Beispiel Giacomo trotz halbjährigem Dienst beim Lift weder das Triebwerk im Keller noch die Maschinerie im Inneren des Aufzuges mit

eigenen Augen gesehen hatte, obwohl ihn dies, wie er ausdrücklich sagte, sehr gefreut hätte.(A 120)

엘리베이터 보이로서 Karl이 매일 같이 해야 하는 일은 작동 단추를 누르는 일 뿐이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기계의 한 부품일 뿐이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크게 실망했다. 인간의 소외는 노동, 즉 생산을 통한 자연으로부터의 이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Marx는 그의 “經濟哲學草稿들”(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에서 “노동을 통해서 자연은 인간의 작품과 그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sup>8)</sup>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그가 창조한 세계, 즉 노동생산물 속에서 知的인 면에서의 자기 자신 뿐 아니라 作業的인 면에서의 자기 자신도 관조함으로써 (...)”<sup>9)</sup>, 그는 노동생산물에서 類的存在로서의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類的存在인 인간의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 소외는 그것의 지속적인 극복을 필요로 한다. 이것의 극복을 통해 인간은 노동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그의 창작물인 노동생산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手工業者는 노동을 통한 자기 실현이 가능하지만, 賃金勞動者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거대한 분업 체계 속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소외에 대한 이러한 Kafka의 감정과 이같은 不自然性에 대한 그의 공포감은 강력한 것이며, 그의 작품은 이러한 테마의 끝없는 변형인 것이다. 즉 “고통으로서의 활동, 생산 활동에서 느끼는 무력감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Beim Bau der Chinesischen Mauer”에서는 거대한 사업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체의 조망을 가능케해 주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가 강조되고 있다. “아주 조그마한 일을 하기에는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는 하위직 노무자들에게 예를 들어 고향으로 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여러달, 혹은 여러해 동안 성벽의 벽돌을 쌓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일생동안 결코 완성

8) Zitiert nach Ernst Fischer: Von Grillparzer zu Kafka, Suhrkamp Taschenbuch, Wien 1975, S. 344.

9) Ebd. S. 344.

할 수 없는 작업이 지니고 있는 無望性(Hoffnungslosigkeit)이 그 노무자들을 절망시켜 무엇보다도 작업을 무의미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을 것이다.”(SE 290)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경영법’(Taylorismus), 노동과정의 신중한 분석, 그리고 노동자의 완전한 기계 부품화 등에 대한 대화가 Janouch와 Kafka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사님, 당신은 그러한 체제 속에서는 인간이 노예화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상입니다.(...)모든 창조적 가장 숭고하고 가장 犯해서는 안 되는 부분, 즉 시간이 불순한 기업적 이해의 그물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 무엇보다도 (...) 인간이 더러워지고 천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심하게 능률화된 삶이란 바라던 富와 利得 대신에 굶주림과 비참함이 자랄 수 있는 소름끼치는 저주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것이 발전입니다....’

‘(...)삶의 콘베어 벨트는 사람을 어디로 운반해 가지만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물체,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Sie denken dabei, Herr Doktor, an die Versklavung der Menschen?’

‘Es handelt sich um mehr als das.(...) Der erhabenste und am wenigsten abtastbare Teil aller Schöpfung, die Zeit, wird in das Netz unreiner Geschäftsinteressen gepreßt. Damit wird (...) vor allem der Mensch, (...), befleckt und erniedrigt. So ein vertaylorisiertes Leben ist ein grauenvoller Fluch, aus dem nur Hunger und Elend an Stelle des gewünschten Reichtums und Gewissens erwachsen können. Das ist ein Fortschritt ...’

‘(...)Das laufende Band des Lebens trägt einen irgendwohin - man weiß nicht wohin. Man ist mehr Sache, Gegenstand - als Lebewesen.’(J 132)

작업이 더 세분화되고, 자본주의의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기구가 더 복잡해지며, 그것이 힘을 더 발휘하면 할수록, 노동생산물과 생산행위는 노동자에게는 점점 더 생소해지는 것이다. 類的存在인

인간은 수천가지로 전문화되어 자기 직업에서 점점 더 편파적이고 단편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점점 더 많이 '職業人間'과 '私的人間'으로 分化된다. 직업인간과 사적인간은 대부분 서로 상대방에게서 완전히 생소해지는 것이다. 좁은 '전문분야'로 축소된 직업은 대체로 만족을 줄 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진 '사적 생활'도 마찬가지로 위축되어 무의미해지며 천편일률적이 되어 無名의 '世人'으로 규정될 수 있다. 사회적인 일의 참여는 대부분 거부된다. 왜냐하면 거대하고 접근 불가능한 권력기구들에 직면해서 共同決定權은 無望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2.3 '중간기관'(Vermittlungsorgan)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 있는 "Die Truppenaushebung"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接近不能의 最高法廷이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작품 - 특히 젊은 귀족의 특성 -에서 뿐 아니라 Kafka 작품에 나타난 총체적 문학 형태와 그의 법과 법정에 대한 이론적 규정들에서도 드러난다. 장편소설 "Der Prozeß"의 재판관들이나 문지기가 보여주는 克服不能의 拒絕行爲들(Abweisungen)은, 결코 최고 '법'에로의 接近不能이 아니고, '세계'의 법을 대표하여 진정한 '법'에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중간기관들 즉 '중개소들'에로의 접근불능인 것이다. 이와같은 "중간기관"<sup>10)</sup>들은 그 근원으로 보아서 지금 유행하는 현대사회 현상들이다. Kafka의 첫번째 장편소설인 "Amerika"에서는 이미 현대 산업사회의 거대한 중간기관을 독점하고 있는 中間商人 Green, Pollunder 두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인 개별적 특징에 이르기까지 묘사되고 있다. 장편소설인 "Der Prozeß"의 '문지기'와 똑같은 호텔 守衛長 등에서는 유사한 비인간적 접근불능 현상을 인식할 수 있다. 젊은 귀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들은 우리가 꾸며낸 恣意的인 구성이 아니라, Kafka의 작품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0) Wilhelm Emrich: Franz Kafka, Wiesbaden 1975, S. 219.

원래 황제와 국민 사이를 중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귀족'은 독자적인 중간기관으로 변해버렸다. 이 중간기관은 그것이 지닌 고유의 중개 기능을 포기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이다. 우리사회의 중개기관들과 기구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변하고, 전망이 불가능한 규정들의 모습으로 진정한 법의 전방에 위치해서, 모든 현실을 접수하고, 유일하게 법을 만드는 실물로 나타난다.

장편소설 "Amerika"의 각 장면들은 전형적인 예로서 젊은 귀족의 행동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火夫의 심문에서는 火夫의 추정적 혹은 실제적 權利가 여하한 방법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New York 근교에 있는 별장에서 이루어진 Karl Roßmann의 추출은 Green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는 局外者의 役을 수행하면서 거대한 힘 속에 뿌리를 박는다. 그리고 이 별장에서 Karl Roßmann이 길을 잃고 들리게 되는 여러개의 방들, 또 호텔의 守衛長 등을 묘사한 장면들이 바로 젊은 귀족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이 "Der Prozeß"와 "Das Schloß"의 법정이나 관청에서 반복된다. 단지 최고법정에서만 진정한 법정질서가 예감된다. 이 질서에 대해 Josef K.는 물론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최고법정만은 비인간적인 접근금지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소속 성직자는 K.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법정은 당신이 오면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가면 당신을 보내준다."(P 189)고. 이 법정은 '豫定'(Prädestination)<sup>11)</sup>을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Kafka의 작품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이 법정은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다. 중간기관만이 접근이 불가능하다. 법을 지키는 문지기는 뇌물을 주어도 접근이 불가능하다. 관청 안에 있는 많은 보이지 않는 기관들은, 접근이 불가능하면서도 買收는 가능하다. 人間의 世界만이 非人間的인 것이다.

Karl은 사회적인 추문을 피하기 위해 Prag의 양친에 의해 추방

11) Ebd., S. 220.

을 당하게 되었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던 가련한 한 하녀가 그를 유혹해서, 그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추방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친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양친의 사진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사진을 보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그는 여러 각도에서 아버지의 시선을 잡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촛불을 여러군데로 옮겨가면서 시각을 바꾸어 보았지만 생동감이 살아나지를 않았다.(...)어머니는 이와는 반대로 사진이 잘 나와 있었다. 그녀의 입은 마치 그녀에게 危害가 가해진 것처럼 꼭 다물어져 있었다.

(...)(er)suchte von verschiedenen Seiten den Blick des Vaters aufzufangen. Aber der Vater wollte, wie er auch den Anblick durch verschiedene Kerzenstellungen änderte, nicht lebendig werden.(...)Die Mutter dagegen war schon besser abgebildet, ihr Mund war so verzogen, als sei ihr ein Leid angetan worden.(A 88)

아버지는 죽어 있다. 그는 그 이상 더 인간이 아니며, 非人間的이고 欺瞞的인 사회의 道德律에 사로잡혀 있다. 어머니는 그러한 사회의 희생물이다. 사진에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아버지 像은 Kafka의 自傳的 요소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Hermann Kafka는 시골 출신으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自手成家한 猝夫로서 教養感覺이란 전혀 없었다. 어렸을 때의 고생담을 자녀들에게 自己陶醉에 빠져 들려주던 시골뜨기가 이제 출세와 힘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支配體系에 적응하고 동화됨으로써 완전히 비인간적인 폭군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가족들을 富와 家門의 명성을 얻는 도구로 취급했다. Kafka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폭군이고 악마였으며 '법' 바로 그 자체였다.<sup>12)</sup>

아무 것도 모른 채 Karl Roßmann은 자기 부모는 진정한 正義와 不義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가

12) Vgl. Peter U. Beicken: a. a. O., S. 203 f.

배에서 火夫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에 가서 높은 양반들 앞에서 죽을 위하여 싸우는 그를 양친들이 본다면(...), 양친은 아들에 대한 의견을 고쳐줄 것이 아닌가! 아들을 자기네들 사이에 앉히고 칭찬해 줄 것인가? 아들의 눈초리 속에 공손한 마음씨를 알아줄 것인가?

Wenn ihn doch seine Eltern sehen könnten, wie er in fremden Land vor angesehenen Persönlichkeiten das Gute verfocht und(...) Würden sie ihre Meinung über ihn revidieren? Ihn zwischen sich niedersetzen und loben? Ihm einmal, einmal in die ihnen so ergebenen Augen sehen?(A 24)

그러나 정의에 대한 정신적 확신은 사회의 “규율”(Disziplin)(A 32)에 부딪혀 부서지고 만다. 이 규율 앞에서는 모든 인간 활동이 튕겨져 되돌아오고 마는 것이다. 더우기 이 규율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 통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율은 화부, 급사, 외삼촌 모두에게 통용된다. 화부는 배에서 통용되는 규율과 제 규정들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불쾌한 감정을 토로해내기 때문에, 그의 말은 효력을 잃고 부당하다는 인상을 불러 일으키며 관리들의 중요한 일인 서류 심사를 방해하게 되고, 결국 합법적인 절차가 규정대로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다.(A 20 ff.) 처음에는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상관들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가련한 남자를 동정해서 시선으로 신호를 보냈던 급사조차도 이제 완전히 마음이 달라져 자기 상관들의 입장에 동조하게 된다.”(A 20 ff.) 공식적으로 형식화된 제 규정들의 自動體系(Automatismus)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화부 역시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이다.

정리로운 일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Karl의 외삼촌인 상원의원은 Karl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실정을 똑바로 파악하도록 해라. 물론 일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규율 문제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두가지가 아울러, 특히 그 중에서도 後者, 즉 규율 문제가 선장님의 처분에 달려 있다.

Mißverstehe die Sachlage nicht, es handelt sich vielleicht um eine Sache der Gerechtigkeit, aber gleichzeitig um eine Sache der Disziplin. Beides und ganz besonders das letztere unterliegt hier der Beurteilung des Herrn Kapitäns.(A 32)

사회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상원의원 역시 규격화된 규율에 굴복하고 있다. 그는 私的인 일 즉 자기의 조카인 Karl을 뜻밖에 만난 일로 인해 公務를 방해하게 된 일을 선장에게 사과한다. Karl은 외삼촌의 사과를 이해할 수 없는 "외삼촌의 모독"(A 334)으로 간주한다. 선장은 일종의 모독인 외삼촌의 사과를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선장의 의식 속에서는 관청의 업무가 私的인 모든 업무에 우선하고 있다. "규정을 지키는 일에서는 그는 예의를 고려하지 않는다."(A 33) 이렇게 하여 Karl은 "모든 사람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서는"(A 33) 자기가 화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고 울면서 그는 화부의 손에 키스를 하며, 화부에 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호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예스나 노우나 태도를 똑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도무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Du mußt dich aber zur Wehr setzen ja und nein sagen, sonst haben doch die Leute keine Ahnung von der Wahrheit.(A 33)

그러나 Karl의 고통에 대한 외삼촌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火夫가 너를 흘린 것 같구나'라고 그는 말하더니 무슨 깊은 암시를 주는 듯 Karl의 머리 너머로 선장에게 시선을 던졌다. '너는 외로웠지. 궁할 때에 火夫를 만났으니, 지금 와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참 기특한 생각이다. 그러나 내 입장도 좀 생각해서 너무 지나친 행동이 없기를 바란다. 현재의 네 처지도 생각해 보란 말이다.’

‘Der Heizer scheint dich bezaubert zu haben’, sagte er und sah verständnissinnig über Karls Kopf zum Kapitän hin. ‘Du hast dich verlassen gefühlt, da hast du den Heizer gefunden und bist ihm jetzt dankbar, das ist ja ganz löblich. Treibe das aber, schon mir zuliebe, nicht zu weit und lerne deine Stellung begreifen’. (A 34)

이렇게 해서 火夫의 실질적 권리는 중간기관에 오래전 부터 통용되고 있는 규율에 부딪혀 수호되지 못하므로 그는 자기의 목표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New York 근교의 별장에서 행해진 Karl Roßmann의 축출은 Green에 의해 수행되는데, Green은 중간기관에 속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 중간 기관에 속하는 인물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統治者들이며 助演者들이다. 이 인물들은 놀란 Karl의 눈으로 보면 거창한 모습으로 커진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그들 앞에서 서서히 불어나는 Green의 거대한 몸집 앞에서 - Pollunder의 거대한 체구에 Karl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 Karl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다”(A 53). “Pollunder보다 약간 더 비대한 Green은 (...)키가 큰 운동선수나 체조 리더인 것처럼 보였다.”(A 73) 그의 축출이 결정되기 조금 전의 Green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Green씨가 이 복도에서 우스울 정도로 거인으로 보였다. 혹시나 이 사람이 선량한 Pollunder씨를 먹어버리지는 않았나 하고 Karl은 농담 삼아 스스로 물어 보았다.

Green nahm in diesem Gang eine schon lächerliche Größe an, und Karl stellte sich zum Spaß die Frage, ob er nicht etwa den guten Herrn Pollunder aufgefressen habe.(A 79)

이와 같은 모습들은 중간기관에 소속된 인물들의 세력이 얼마나 더 막강해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외삼촌이 Green를 통해 Karl에게 전달한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조카야! 우리들이 함께 지낸 기간은 짧았지만, 그 동안 경험한 바와 같이 나는 어디까지나 내 主義 主張에 사는 완고한 사람이다. (...) 그러나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도 내 主義 主張의 덕이라 하겠다. (...) 나는 오늘의 사건 후에 너를 우리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

Geliebter Neffe! Wie Du während unseres leider viel zu kurzen Zusammenlebens schon erkannt haben wirst, bin ich durchaus ein Mann von Prinzipien. (...), aber ich verdanke meinen Prinzipien alles, was ich bin, (...), muß ich Dich nach dem heutigen Vorfall unbedingt von mir fortschicken. (...) (A 80)

사업계의 정상에 오른 Karl의 외삼촌조차도 자기의 사업 "원칙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 원칙들이 그에게는 '불쾌하고' 또 그를 '슬프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원칙들이, 그로 하여금 Karl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거부하게 하고 그가 개인간의 접촉이 없어진 이 세상에서 조카와의 접촉을 단념하고, 사랑을 열망한 그를 축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조카와의 접촉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그는 조카가 자기에겐 걸음으로 조금만 무관심을 보여도 틀림없이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Karl은 외삼촌을 정말로 사랑했다. 별장에서 추방 결정이 있던 시각에도 그는, 아침에 "지금도 옷을 상의까지 다 입고, 단추까지 끼고 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랑하는 외삼촌"(A 57)의 방으로 들어가 외삼촌을 놀라게 하고 그와 함께 숨김없는 친교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꿈을 꾸다. Karl은 외삼촌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를 希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는 "숨김없는 의견 개진"(A 57)의 부족 때문에 불가능하다. 외삼촌은 Karl이 Pollunder의 별장에 가는 것을 불편한 심기로 허락했었다(A 46). 그는 Karl이 자기의 솔직

한 감정에 따라 외삼촌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Pollunder의 초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당연히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카의 실제의 기분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 점에 대한 결정을 바로 Green에게 위임해 버린다. 그는 Karl이 언제나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기의 숨은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Karl은 不知中에 외삼촌의 소망에 따라 행동하는 대상이 되며, 그는 Karl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게 된다. Karl은 외삼촌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그의 기분을 파악할 수는 없었고 또 그의 말이 최종적인 결정인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외삼촌은 Karl의 마음이 Pollunder, Klara 그리고 자기 이렇게 세사람 중에 어디에 쏠리는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시각인 자정까지 그의 축출에 대한 결정을 연기함으로써, Karl이 자기의 기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신도 역시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Karl은 오래전부터 외삼촌을 택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항상 아저씨와의 접촉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두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두사람을 모두 속이고 있는 Green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고 말았다. 巨人이 된 Green은 두사람 사이의 진정한 인간적인 만남을 파괴하고 마는 것이다. 그는 자정에 Karl을 만나게 되면 넘겨주라는 아저씨의 요구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兩者의 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자정이 되기 15분전부터 Karl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그 곳에서 그를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편지를 교부해 버린다. 이것으로 Karl의 운명은 중간기관에 소속된 막강한 인물인 Green에 의해 결정되고 마는 것이다. 외삼촌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갈망하던 그의 자아는 사회를 지배하는 중간기관에 의해 그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Karl이 Green과 헤어지기 직전의 장면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Karl은 Green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 보았다. Green의 마음 속에서는 자기의 底意가 탄로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계획이 뜻대로 된 데 대한 기쁨이 서로 얽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Karl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사실 Karl은 이미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 마치 Karl의 말을 도중에 가로채는 것같은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이상은 더 말하지 마시오!

Karl sah Green mit scharfen Augen an und erkannte wohl, wie in Green die Beschämung über diese Entlarvung mit der Freude über das Gelingen seiner Absicht kämpfte. Endlich nahm er sich zusammen und sagte in einem Tone, als wäre er Karl, der doch schon lange schwieg, mitten in die Rede gefallen: 'Kein Wort weiter!' (A 82)

Karl은 New York 근교의 별장에서 추방된 후 Occidental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도 중간기관에 의해 또다시 축출되고 마는 것이다. 어느 날 Karl은 별장에서 추방된 후 도중에 만났던 건달 중의 하나인 Robinson의 방문을 받게 된다. 그는 만취된 Robinson의 뒤치닥거리때문에 근무지인 엘리베이터를 이탈하게 된다. 단 2분 동안의 이탈이었으나, 그것은 보이장(Oberkellner)에게 발견되어 그는 불러가게 된다. 보이장은 중간기관에 소속된 인물답게 당당한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 보이장은 몸집이 대단히 큰 사람이었다. 장식이 많이 달린 호화스러운 제복이 - 양쪽 어깨에서 양쪽 팔에 걸쳐서 금색 술과 리본이 둘둘 말려져 있었다 - 실물 이상으로 그의 어깨 폭을 넓어 보이게 했다. 헝가리 사람이 기르는 것 같은 끝이 뾰족하게 뻗친 코밀의 수염은 검은색으로 빛났는데 머리를 갑자기 돌려도 움직이지 않았다. 더욱이 복장의 무게때문에 동작이 대단히 둔중할 뿐 아니라 선다고 해도 체중을 정확히 배분하기 위해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서 버티고 서는 수밖에는 없었다.

Es war dies ein großer Mann, den seine üppige, reichgeschmückte Uniform - noch auf den Achseln und die Arme hinunter schlängelten sich goldene Ketten und Bänder - noch breitschultriger machte, als er von Natur

aus war. Ein glänzender Schnurrbart, weit in Spitzen ausgezogen, so wie ihn Ungarn tragen, rührte sich auch bei der schnellsten Kopfbewegung nicht. Im übrigen konnte sich der Mann infolge seiner Kleiderlast überhaupt nur schwer bewegen und stellte sich nicht anders als mit seitwärts eingestemmt Beinen auf, um sein Gewicht richtig zu verteilen.(A 141)

그는 젊은 시절 엘리베이터 보이였고, 엘리베이터 보이들을 처음으로 조직화한 인물이었다. 그는 놀랄 정도의 큰 목소리로 Karl을 다음과 같이 질책한다.

너는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텐데. 그러면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야. 변명같은 것은 듣기도 싫다. 거짓말로 꾸며댄 변명은 너 혼자에게나 통하는 거야. 제가 맡은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짓을 한번이라도 참고 용서해주면, 요 다음에는 사십명의 엘리베이터 보이들이 모두 근무 중에 제멋대로 근무지를 이탈해서 나중에는 나 혼자 오천명의 손님을 계단에서 끌어올려야 할 거야.

Du hast deinen Posten ohne Erlaubnis verlassen. Weißt du, was das bedeutet? Das bedeutet Entlassung. Ich will keine Entschuldigung hören, deine erlogenen Ausreden kannst du für dich behalten, mir genügt vollständig die Tatsache, daß du nicht da warst. Wenn ich das einmal dulde und verzeihe, werden nächstens alle vierzig Liftjungen während des Dienstes davonlaufen, und ich kann meine fünftausend Gäste allein die Treppe hinauftragen.(A 143)

이러한 가혹한 질책에 대해 Karl은, 離席을 할 때 전화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고 변명을 하고 또 자기는 2개월의 근무기간 중 단 한번도 근무지를 이탈한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이 보이長에게 통할 까닭이 없다. 보이長은 Karl에게 근무규정을 ‘큰 소리로’ 낭송할 것을 명령한다. Karl은 이제 단 한번의 離席에 대한 처벌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그곳에 와 있던 守衛長(Oberportier)이 보이長에게 가세한다. "Der Prozeß"에 삽입되어 있는 전설(Legende) "Vor dem Gesetz"에 등장하고 있는 문지기(Türhüter)들이 막강한 인물들로서(P 182) 시골 사람들의 '법'에로의 입장을 방해하듯이, Occidental 호텔의 守衛長 역시 중간 기관을 대표할 만한 막강한 인물인 것이다. 그의 지위가 갖고 있는 힘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 충분히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나는 守衛長으로서 어떤 의미로는 이 호텔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작은 문이라든지 문도 없는 통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현관문과 세개의 가운데 문과 열개의 옆문이 모두 나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Im übrigen bin ich in gewissem Sinne als Oberportier über alle gesetzt, denn mir unterstehen doch alle Tore des Hotels, also dieses Haupttor, die drei Mittel- und die zehn Nebentore, von den unzähligen Türchen und türlosen Ausgängen gar nicht zu reden.(A 166)

겉으로 보기에 公的 建物의 가장 보잘 것없고 낮은 신분인 이 수문장이 지배자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기를 거쳐야 하고, 여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가거나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관찰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막강한 수위장이 Karl의 일에 끼어들어, "두툼하고, 커다란 짐게손가락으로" 그를 지적하면서 트집을 잡는다. Karl이 그에게 인사를 앓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나에게 철저히 인사 앓는 놈은 너뿐이야. 도데체 뭇 때문에 빠기는 거야? 수위실 앞을 지나갈 때는 누구나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야. 다른 수위들과는 네멋대로 사귄 수 있겠지만, 나는 인사를 받고 싶다. 나는 모르는 체하면서도 여러번 주목을 했는데 너는 뻔뻔스럽게 인사도 없이 지나갔어. 누가 인사를 하고 안하고 쫓은 나는 모두 알고 있어. 이 건방진 놈아.

Du bist der einzige Junge, welcher mich grundsätzlich

nicht begrüßt. Was bildest du dir eigentlich ein! Jeder, der an der Portierloge vorübergeht, muß mich grüßen. Mit den übrigen Portiers kannst du es halten, wie du willst, ich aber verlange begrüßt zu werden. Ich tue zwar manchmal so, als ob ich nicht aufpaßte, aber du kannst ganz ruhig sein, ich weiß sehr genau, wer mich begrüßt oder nicht, du Lümmel!(A 145)

이와 같은 守衛長의 말에 대해 Karl은, 자기는 하루에 서너번 정도는 인사를 했으며 하루에 백번 정도는 그의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매번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고 항변한다. 여기에 대해 수위장은 자기에 대한 행동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번 더 강조한다.

너는 번번이 인사를 해야 한다. 알겠어! 인사를 안해도 좋은 때는 한번도 없어. 너는 나와 이야기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있어야 해. 그리고 언제나 말을 걸 때는 '守衛長님'이라고 불러야 해. '당신'이라고 해서는 안되는 거야. 언제든지 번번이 지금 내가 한 말은 실천을 해야 된다.

Du hast mich jedesmal zu grüßen, jedesmal, ohne Ausnahme, du hast die ganze Zeit, während du mit mir sprichst, die Kappe in der Hand zu halten, du hast mich immer mit 'Oberportier' anzureden und nicht mit 'Sie'. Und alles das jedesmal und jedesmal.(A 145)

특이한 것은 이 수위장은, 보잘것없는 엘리베이터 보이들에게까지 항상 '수위장'으로 호칭되며 언제나 인사받기를, 더욱이 그것도 그들이 출입문을 통과할 때마다 "인사를 또 하고 또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기 부하들의 복종을 통해 자기 지위를 늘 인식하고자 한다. 그 자신은 아무런 품위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내면적으로 자기는 아무런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력과 권위의 인물 앞에서 주인공 Karl의 주장이 관철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의 "同鄉人"(A 114)이며, 그를 따듯하게 보살펴주었던 廚房長(Oberköchin)이 그를 위해 처음에는 노력

을 한다. 그러나 그녀는 보이장의 性的 接近과 그의 논리에 휘말려, 보이장이 질투심 때문에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Karl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세력이 無限大로 커지는 중간기관들은 관료 기구들의 숨어있는 진실한 모습에 대한 이 시대의 형상이며<sup>13)</sup> 그들은 개개인에게서 그들개개인의 모든 결정권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어 개개인은 자기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조직내에서 제거되거나 소외되고 마는 것이다.

### 3. 결 론

이상에서 이미 고찰된 바와 같이 미완성인 장편 "Amerika"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자아 상실 문제가 취급되고 있다.

외삼촌이 경영하는 회사의 電信室에서 설틈없이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강요된 작업 속에서 인간은 그의 인간적인 모든 요소가 배제된 채 기계화되고 그가 소속된 거대한 조직의 한가지 부품으로 전락하여 비인간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Hotel Occidental"의 프런트 안내실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두명의 안내원은 고객들의 수많은 청원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정상적인 속도와 말로는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지껄여대야 하는 것이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보조자료조차 볼 틈이 없다. 주인공 Karl은 엘리베이터 보이로서, 그가 하는 일은 매일같이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 뿐이다. 이와 같이 분업화된 작업에서는 주인공은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類的存在로서의 인간의 본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중간기관'들이 등장한다. 옛날에 황제와 국민 사이를 중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귀족'은 독립된 중간기관으로 되어 버렸고, 중간기관은 또 자기의 중개기능을 가진 중간지위를 포기하

13) Wilhelm Emrich: a. a. O., S. 238.

고, 반면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는 독립된 기관으로 변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중간기관들과 중간기구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력이며, 展望이 불가능한 규정들의 모습으로 모든 현실을 접수하고, 유일하게 법을 만드는 실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중간기관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Der Heizer”에 나오는 회계주임, 외삼촌 회사의 Green, Pollunder 두 사람과, 호텔의 보이長, 守衛長 등이다. 그리고 “Die Truppenaushebung”에 등장하는 비정한 젊은 귀족이며 “Der Prozeß”의 문지기와 법정의 官吏들이고, “Das Schloß”의 城의 官吏들이다.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법'이 보유하고 있는 제규정들의 자동체계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작품의 주인공 Karl은 막강한 중간기관을 隱喩하고 있는 Pollunder와 Green씨 및 守衛長의 방해와 농간에 의해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산업사회의 조직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된다. 이들 중간기관들의 막강한 권력 남용과 농간에 의해 인간의 자아 실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16세의 어린 소년으로 부모로부터 추방되어 새로운 세계 Amerika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보려 했던 주인공 Karl은, 현대산업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그 사회의 노동 조직의 한갓 부품으로 전락하여 본래적인 인간 존재를 상실하고, 오히려 막강한 힘을 가진 중간기관에 의해 또다시 추방을 당하고 만다. 그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인간 존재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볼 때 '失蹤者'인 셈이다.

## Literaturverzeichnis

### I. Texte

A = Kafka, Franz: Amerika. Roman, hrsg. v. Max Brod, Frankfurt a/M 1983

J = Janouch, Gustav: Gespräch mit Kafka. Aufzeichnungen und Erinnerungen, Frankfurt a/M 1981

P = Kafka, Franz: Der Prozeß. Roman, hrsg. v. Max Brod, Frankfurt a/M 1983

S = Kafka, Franz: Das Schloß. Roman, hrsg. v. Max Brod, Frankfurt a/M 1980

SE = Kafka, Franz: Sämtliche Erzählungen, hrsg. v. Paul Raabe, Frankfurt a/M 1980

T = Kafka, Franz: Tagebücher 1910 - 1923, hrsg. v. Max Brod, Frankfurt a/M 1983

### II. Sekundärliteratur

Beicken, Peter U.: Franz Kafka.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 Frankfurt a/M 1974

Emrich, Wilhelm: Franz Kafka. Wiesbaden 1975

Fischer, Ernst: Von Grillparzer zu Kafka, Surkampff Taschenbuch, Wien 1975

Kobs, Jürgen: Kafka. Untersuchungen zu Bewußtsein und Sprache seiner Gestalten, Bad Homburg 1970

Mark, Spilka: Dickens und Kafka. A Mutual Interpretation, Bloomingston 1963

Zusammenfassung

**Eine Studie über das Werk "Amerika" von Franz Kafka**

Kwon, O-Sang

Wie schon erwähnt, handelt der unvollendete Roman "Amerika" von dem Problem der Selbstentfremdung, die durch den Mechanismus der modernen industriellen Gesellschaft verursacht worden ist.

Alle Arbeit im Telefonsaal des Oheims, die in pausenlos rasender Eile durchgeführt wird, schaltete alles Menschliche aus. Hier werden die Menschen durch die entfremdete Arbeit degradiert zu Anhängsel der Maschinen, die sie bedienen.

Dieselbe pausenlose Arbeit kann man auch im Hotel Occidental sehen. Zwei Angestellte in der Portierloge haben zu viele Auskunfte zu erteilen. Bloßes Reden hätte für ihre Aufgabe nicht genügt. Sie plapperten, besonders der eine gab die Auskunfte ohne die geringste Unterbrechung.

Der Protagonist Karl Roßmann war Liftjunge des Hotels. Er hat bei seinem Dienst nur einen Knopf des Aufzugs zu drücken brauchen. Er muß dabei immer dieselbe Tätigkeit wiederholen. Diese monotone, immer wiederholte Areitsleistung bringt den einzelnen in eine Situation, in der er nur einen kleinen Teil seiner Fähigkeiten verwirklichen kann. Die Arbeit als eine schöpferische Tätigkeit ist ganz und gar ausgeschossen.

Im Werk "Amerika" erscheinen die Vermittlungsorgane. Der Adel, der einst zwischen Kaiser und Volk vermitteln

sollte, ist zur autonomen Zwischeninstanz geworden, die damit auch ihre Zwischenstellung aufgibt, sich verselbständigt zur maßgebenden Instanz selbst. Genau das aber ist das 'Gesetz' unserer Gesellschaft, deren vermittelnde Instanzen und Apparaturen zur alles beherrschenden Macht werden, sich in Gestalt unabsehbarer Verfügungen dem wahren Gesetz vorlagern, alle Wirklichkeit in sich aufsaugen, sich als einzig gesetzgebende Wirklichkeit repräsentieren.

Diese Vermittlungsorgane (Zwischeninstanzen) vertreten der Oberkassier in "Der Heizer", Herr Green, Herr Pollunder, Oberportier in "Amerika", der junge Adelige in "Die Truppenaushebung", Verhüter in "Der Prozeß" und die Beamten in "Das Schloß".

Vor den Verfügungen, über die das von den Vermittlungsorganen vertretene 'Gesetz' verfügt, kann niemand seinen Willen durchsetzen. Die drei Personen, Pollunder, Green und Oberportier, die die mächtigen Vermittlungsorgane repräsentieren, verstoßen Karl Roßmann aus der industriellen Gesellschaft. Die Vermittlungsorgane machen also den Menschen die Selbstverwirklichung unmöglich.

Der 16jährige Karl Roßmann, der von seinen Eltern aus dem Haus verbannt worden ist, hat in Amerika keine Möglichkeit, sich frei zu entwickeln. Er wird in den großen Mechanismus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einbezogen. Er ist dem Mechanismus verfallen und zu einem Behör der Industriegesellschaft gesunken, nach dem er seine Persönlichkeit verloren hat. In diesem Sinn kann man Karl Roßmann den 'Verschollenen' nennen.